

1992

12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마가복음 8장 27절~15장 20절



11월 1일에 있었던 '92 예수사랑 큰잔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마가복음은 복음서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책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대략 주후 70년 전후로 보고 있다. 저자인 요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서기 또는 비서였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된 복음이다. 이 복음서의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긴급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곧 하늘이 갈라지고” “곧 그 물을 버려두고”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는 유대백성과 이방민족들을 긴급하게 복음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을 속히 확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마가는 “지금 당장 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늦게 시작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삶을 나눈 후에야 주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에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가복음 중심 말씀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이 말씀의 기록대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

12월의 기도제목

1. 1992년의 마지막 달에 성령의 역사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3. 신성종 담임목사님의 능력있는 목양
4. 남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성령충만
5. 전교회의 기도운동으로 제2 오순절 역사
6. 11월 1일 결신한 새신자들의 교회출석과 양육
7. 봉사관 공사 완공
8. 금요찬양집회에 은혜충만
9.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
10. 2000 복음화운동

1992 12

The Family Alta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마가복음 8장 27절~15장 20절



11월 1일에 있었던 '92 예수사랑 큰잔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화)신앙고백과 수난예고

찬송 367, 성경 막 8:27-38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8:29)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의 최종 결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제자들의 공개적인 고백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런 고백은 인류 구속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수난 예고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바로 이 신앙고백의 허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길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과 영광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고백이 없는 교회와 구원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고백과 십자가의 길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여정의 모습이 됩니다.

-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순탄하거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믿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올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확신을 더욱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 졌더라」(9:3)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눈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런 변화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승천, 재림의 영광으로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상에서 인준함과 아울러 하늘에서 인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짝을 이루어 구약의 완성자요 새 언약의 개시자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점진적으로 선지자 직임을 벗고 대제사장 직임을 수행하실 것을 알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너무 기뻐한 나머지 초막 셋을 지어 더불어 사실 것을 제의 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중단하는 것을 옳지 못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 * *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3 (목)귀신들린 아이

찬송 235, 성경 막 9:14-29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9:25)

하루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 못한 귀신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 귀도 먹은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은 마르고 뺏뺏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실때 먼저 저들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 받는 역사를 나타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불가능은 가능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히 11:6) 그리고 기도는 믿음에 불을 붙여주는 시발점이자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 * *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었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보다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9:47)

어떠한 분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말이 기분 나빠서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손으로 범죄한 자, 발로 범죄한 자, 눈으로 범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침돌을 놓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치고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집주인인 부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뜨거운 지옥불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물 한방울만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우리는 이시간 눈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며 악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알리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더욱 말씀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지옥의 불을 향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자되게 하소서. 당회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소서.

5 (토)예수님의 결혼관

찬송 305, 성경 막 10:1-12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10:9)

우리들의 가정은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곳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의 가정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들의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처받은 자녀들이 사회로 뛰어들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혼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9절). 주님께서서는 누구도 부부의 관계를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위로하고 돕고 그의 지혜와 선 가운데 연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이루어 집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까? 우리 자신 속에는 과연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속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존경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봅시다.

- *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창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까지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무릎을 꿇고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추어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안수집사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9:33)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님을 말하라고 한다면 “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같은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쏠리곤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해도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구진 일에는 외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그와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논쟁을 합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대접을 받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하면 못사람의 꼴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섬길 때에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 * 예수님께서서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섬기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으뜸이 되시고 큰자이시지만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섬김은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포장된 헌신이 아닙니까?

기도 주여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권사님들이 무릎이 더욱 단단하게 하소서.

7 (월)어린이들을 축복하심

찬송 300, 성경 막 10:13-16

「그 어린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0:16)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의 꽃이요 소망입니다.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정직하게 자라난다면 결국 정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소망이 없고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리하였습니다(10:13).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하시고(14절), 그 다음엔 그들을 안고 축복기도하여 주셨습니다(16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어린이도 어른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연령별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녁예배 같은 때에 어린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둘째,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매일 혹은 매주)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 부터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심으십시오.

셋째, 유아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 * * 어느 집에서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식구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은 집에 늦게 들어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집의 어린이들을 거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10:27)

본문에서 제일 먼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17절). 그는 영생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탐구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행 17:11). 진리에 관해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주저앉았습니다(22절).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보배요 소망이요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꼭 붙들고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권력일 수도, 취미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청년에겐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27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됩니다. 청년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 *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특히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서 헌신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 해결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전도회 위에 축복하시고 더욱 활성화 되게 하소서.

9 (수) 섬기는 신앙생활

찬송 278, 성경 막 10: 32-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10: 45)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섬기시기만 하셨습니다. 세리들을, 창기들을 말씀으로 섬기시고 함께 식사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일랑 아예 버리십시오. 가정에서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섬길 생각만 하고서, 섬기기만 하십시오. 상대방이 섬기든 안 섬기든 관계없이 우리는 오로지 섬기기만 하십시오. 섬기지 않으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섬기는 삶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섬기려고 하면 힘이 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속의 흐름은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남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기 위치와 지위에 관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를 바라고 준비하며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섬기기만을 애써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섬기려고 하는가 안하는가입니다.

- * *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힘껏 섬기는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해야 합니다. 씻어달라고 내어미는 발만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씻어주려고 걷어제친 손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저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10:48)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48절). 그는 거지이며 소경이었습니다. 늘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붙잡히 여기며 자신의 해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를 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데 따라오는 방해거리들을 그는 뛰어 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고 예수님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어른이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어 아주 먼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디매오는 소원과 목표가 뚜렷했습니다(51절). 그의 소원과 목표는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즉각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숭배의 나라에 가서 “뜻을 정하여”(단 1:8) 하나님만 섬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 * *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눅 18:1 이하).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파도를 헤치고 전진합니다. 주 예수님께 씨를 뿌려 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기도 바디매오처럼 더욱 심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각 교구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확장되게 하소서.

11 (금)평화의 왕 예수님

찬송 133, 성경 막 11:1-1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11: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두 명과 나귀새끼 한 마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를 일군으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등을 사용하셨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군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려서 쓰임받는 필요한 존재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교회나 사회 곳곳에서는 나귀 한 마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시에 천군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눅 2:14)라고 찬양하였습니다. 3년 반의 공적인 생애를 지날 때도 예수님은 평화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총, 칼을 들고서 위협하는 무사가 아닙니다. 그는 나귀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평화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일생도 평화의 일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평화가 숨 쉬고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 * *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 들려온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과 창, 그리고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로도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상과 우주에 평화가 옵니다.

기도 나귀타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다스리옵소서. 각 구역에서 봉사하는 구역장, 권찰들에게 새힘을 허락하소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입사귀외에 아무것도 없더라」(12:13)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날에 발생한 사건으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청결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나무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 곧 겉은 화려하지만 전혀 결실이 없는 유대인들의 징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하였고 각종 기물에다 은금으로만 장식한 내부의 모습은 무척 현란하고 장엄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며 낭랑한 목소리로 경전을 낭송하고 아름다운 주악에 맞추어 시편으로 찬양할 때는 더없이 거룩하고 위엄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들에게서 사랑과 자비의 결실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는 가지고 있었지만 선민으로서의 진정한 경건이나 참된 신앙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 * *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유대인 같은 열매없는 삶이 아닌지? 말로는 헌신 봉사를 외치나 실상의 삶은 열매가 없고, 화려한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합당한 열매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외만 무성한 존재가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진실의 열매 봉사,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외만 무성한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소서.

13 (주일)예수님을 모해하는 자들

찬송 521, 성경 막 11:27-33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11:28)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함을 분개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기 위하여 책잡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달게 받아 회개하거나 진정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여 예수님을 책잡아 체포하여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은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소란피울 권세를 하늘에서 주었느냐? 스스로 취한 것이냐?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나 자기를 과장하는 말을 하지 않나 하며 진퇴양난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질문하시기를 “나도…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대답하라.”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왜 믿지 않느냐 할것이고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백성의 배척을 받게 될 것임으로 모르겠다고 그들은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 *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한말로 대답지 못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교활한 모략으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들은 오히려 미궁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모략이 참 지혜를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인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며 이 한국 민족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북한에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소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12:9)

본 비유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부패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듯이 이 세상도 주님께서서 조성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마땅히 소출을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그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기대하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악하고 불순종하여서 소출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 까지 하였고 나중에는 믿고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농부는 유대교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새농부인이 이방인들을 의미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 개인에 맞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거부하면 그 특권과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 * *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거절로 그 특권과 의무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자유와 신임을 무시하고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려하나 최후의 심판이 임하여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특권과 의무를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 (화)납세문제에 대한 질문

찬송 429, 성경 막 12:13-17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2:17)

본문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음모에 대해 아주 적절하고 완벽할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을 해서 실패한 저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잡을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것이 가하니이까'이 질문을 논리학의 궁지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납세함이 옳다고 하면 그때의 유대의 애국자들의 마음을 거슬리고 납세함이 옳지 않다하면 당시 로마법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기독교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 먼저 우리는 국가 제도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히 요구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정부의 혼란상태 보다는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 역사진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법적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롬 13:1-7 참조). 그러나 만일 국가 혹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 등 불경건한 일을 명할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있으되 발은 땅에 대고 사는 자로서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전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12:27)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않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성경을 믿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은 받아 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영생도 천사도 영들도 믿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시정하여 바른 해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는 결혼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활 후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출생이 필요없고 자손이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진정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신령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상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온전한 인격자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존재, 인간의 연약성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 * *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신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몸도 부활하여 영과 몸이 온전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도 전도하게 하시고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서만수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과 사역위에 축복하소서.

17 (목) 목숨을 다하여

찬송 512, 성경 막 12:28-34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12:30)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율법의 근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첫째되는 이유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생명 전체와 우리 지식과 육체적 능력 등 무슨 힘이든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감정으로만 아니고, 외적 생활로만 아니고 지성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 * 우리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시므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12:37)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부음을 받은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말의 뜻은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시편 110편1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시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승리의 메시아 관념과 얽혀서 정치적 민족적 희망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뜻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요 8:58) 창세 전에 이미 계셨으며, 따라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여 ‘다윗의 후손’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할 것이란 착각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 *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권력을 무한히 주셔서 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지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9 (토) 올바른 헌금

찬송 71, 성경 막 12:41-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넘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12:44)

주님께서 어느날 헌금 례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가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한 과부였습니다.

물론 부자는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그의 가진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과부의 헌금이 큰 것입니다. 그 과부는 소유 전부를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소유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는 비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헌금 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부의 헌금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물질은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과 재능의 집합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모아진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해야할 것입니다.

- * * 우리는 헌금한 액수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비율이 어떠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헌금 드릴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안석렬선교사(수리남)의 선교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13:2)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차례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예수께서 제사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 성 밖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장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던 중 그들의 마음에는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 사회 문제에 관한 큰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와 엄숙하고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첫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주전(BC) 886년 건축했고, 또 스룹바벨이 주전(BC) 520년에 건축했으며, 셋째로 주전(BC) 19년에 헤롯왕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82년 만에 완성한 이 성전은 22,800평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같은 성전을 보고 감탄하여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참신앙이 더욱 중요합니다.

- * * 우리는 큰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가는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1 (월)종말의 징조

찬송 539. 성경 막 13:5-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13: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미혹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교적 박해가 있을 것이며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족속 중에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모름지기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는 깨어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온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 •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와 세계선교, 북한선교에 대해서 늘 기도합시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13:23)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과 그때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끈임없는 게릴라식 독립운동으로 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30년쯤 지난 주후 66년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이것이 유대-로마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후 67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유대인들은 성안에서 결사 항쟁을 계속하였지만 3년 뒤 티토를 대장으로 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내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알몸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유대가 승전할 것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페레아 지방의 켈라라는 마을로 도망하여 100만이 넘는 사람이 학살 당한 참담한 전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일부는 예루살렘 함락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어서 화를 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제2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장차 올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생활을 합시다.

23 (수)사람들이 보리라, 보리라

찬송 168, 성경 막 13: 24-27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13: 26)

요즘 우리는 지진에 관한 소식을 부쩍 많이 듣습니다. 지진이 일어 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천년을 갈 것같이 버티고 서 있는 마천루도 온 땅을 뒤흔드는 초강력 지진 앞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는 지상의 지진이 아니라 우주의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같이 보이던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뒤흔들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할 것같이 보이던 권위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마굿간에서 짐승들의 축하를 받으며 오셨지만 종말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엄위하신 위를 크게 베푸시고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던 사람이든 영접하던 사람이든 누구나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두눈이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 * 이 모습은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줄까요!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 정식으로 잔치에 초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 갑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13:33)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3월초에 훈련소 문을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앙상한 플라타나스 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일 지난 뒤 훈련 사이 쉬는 시간에 훈육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저 플라타니스 보이는가? 저 가지에 잎사귀가 이 손바닥 두 개만해 지면 제군들이 임관을 하고 저 문밖을 나갈 수 있게 될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틈만 나면 플라타나스 나무만 쳐다 보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과 6개월 동안 병영에 갇혀서 훈련을 받는 훈련 군인이 임관을 기다리며 임관의 징조라고 들은 나무 가지를 마르고 달토록 쳐다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주님이 오실 징조가 무엇인지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까?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무화과 나무 잎을 얼마나 자주 쳐다 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왔다는 시대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는 믿는 자에 대한 미혹과 환난입니다(22, 24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주님의 오심을 경계간에 당하게 됩니다(14:36).

25 (금)마리아와 가롯 유다

찬송 115, 성경 막 14:1-11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14:8)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정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세워놓고 그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시기에 문둥이였던 베다니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향수(장정 일년치 노임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 향아리 꼭지를 깨드려 열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능력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시기가 좋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드려 헌신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팔아 먹으러 방을 나섰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고맙다는 인사나 듣지'라고.

-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든가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기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구세주의 강림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14:27)

예수님은 이번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마지막 기회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후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미칠 충격을 생각하시고 미리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란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잡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 일을 당할 때 놀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참, 예수님 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체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비교, 막 9:24). 그결과 그들은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평생토록 그 일을 뉘우치며 살아야 했습니다(눅 22:62).

- *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도 베드로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체험을 과신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27 (주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찬송 219, 성경 막 14:32-42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14:36)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33절).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인간적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해야 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대속적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에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 무지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잠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 *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당시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함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14:53)

예수님은 가롯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생명을 책임지시는 스승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종교지도자들의 심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서로 맞지도 않는 여러 증인들의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참람한 말을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한 무리들은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는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 1:10,11)라고 했습니다.

- * * 무지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심문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29 (화)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찬송 334, 성경 막 14 : 66-72

「닭이 곧 두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14 : 72)

스승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문 현장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곤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제사장 뜰에서 세 사람의 추궁을 세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 단호한 약속과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닭이 두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눅 22:61, 62)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습니다.

- * *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그 분을 사랑했던 그 처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했습니다 / 그러나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현장에서 의식주를 위해 그 분을 모르는 체하지는 않는지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
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15:15)

예수님은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
시도록 넘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대답만을 분명히 하였고, 그 외 거짓 고소들에 아무런
대답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
다.(요 17:3)

그런데 명절에는 죄수는 특별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
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은 죄수 바라
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줄기찬 요구를 만족
케 하기위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통치자의 당시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바라바 보다는
예수님의 석방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에게 있어서 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식적인 판단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빌라
도의 재판 결정은 원칙보다 사람을 두려워 하는 인간적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 * * 삶의 현장에서 절대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며 대처하지는 않는
지요? 나는 성경의 원칙에 항상 충실하고 있습니까?

31 (목)조롱당하신 예수님

찬송 204, 성경 막 15:16-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15:20)

사형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왕에게 예우하는 행위를 한 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거짓 왕으로 대우를 받으시고 모욕적인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타락하고 무지한 인간은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그 분이 당하신 조롱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 *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1992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나도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따르는 조롱을 당하기를 기뻐해야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